

은퇴자 출가할 수 있는 길 열릴까?

■ 은퇴출가제도 첫 공청회 현장
“수행·포교역할 부여 특별법 필요”
“양보다는 질적 정책 전환이 우선”
특위, 3월 임시총회 재상정 주목



은퇴출가제도 마련을 위한 첫 공청회가 지난 15일 열렸다. 기초발제를 맡은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스님(사친 가운데)은 “출가수행자의 무한한 가능성과 기쁨을 생각한다면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은퇴출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총단이 오는 3월 중앙총회 임시회를 앞두고 은퇴출가제도 마련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조계종 중앙총회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수암스님)는 지난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은퇴출가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은퇴출가자의 지위와 역할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출가특위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특별법을 다음에 중앙총회에 재상정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기초발제를 맡은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스님은 현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은퇴자 출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수행과 봉사, 포교의 역할을 부여한 은퇴자출가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기획실장 스님은 “지난 총회에서 은퇴출가자의 신분과 지위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중회위원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며 “주지나 소임에 대한 역할과 권한은 제한하되, 수행자와 포교사,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45세에서 56세가 직장생활의 은퇴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연령을 55세 이상자로 하고, 10~15년 이상의 사회적 직무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국가 기준에서 최소한의 사회복지 준비를 마친 사람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늦게 출가한 만큼 사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사생활을 3년 정도로 하고, 이후 사미(니)계를 받고 5~1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귀족계를 받게 하자고 밝혔다. 이어 “출가수행자의 무한한 가능성과 삶의 기쁨을 생각한다면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원철스님은 이같은 주장에 종단과 은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부 역량과 준비가 갖춰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승가를 유지하기 위해 이제는 양보다 질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원철스님은 “지난 2005년 출가자 감소해 소를 위해 출가연령 상한선을 40세에서 50세로 높인 뒤, 전체 출가 인원의 절반 이상이 40~50대가 차지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보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주도면밀하게 접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중앙총회위원 우봉스님은 “은퇴 출가를 한 분에 대해서는 미리 수행자로 살 것이지 성직을 염두한 것인지 전제로 해서 받고 교육과정을 이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장 수암스님은 인사말에서 “출가제도 개선 특위는 백세시대에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대 정신을 담아, 사찰에 머물며 부처님을 시봉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넓혀나갈까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특별법을 성안할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을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귀중승 입적규정 완화 ‘제안’

이에 앞서 출가특위는 제9차 회의를 통해 현행 ‘귀중승 입적에 관한 령’을 개정해 귀중승에 대한 입적규정을 완화하고 심사절차는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위원들은 현행 제도가 개정될 때까지 자격요건이 강화됐으며, 일정기간 동안 타종단 승적 유지 후 귀중승 신청했을 때 수계나 교육, 승남 등에 일정 부분을 인정해 출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함께했다. 이에 출가특위는 연령제한 부분을 완화하고 귀중승이 사미계뿐만 아니라 비구계와 법계 수계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제안서를 작성해 총무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별빈자 사면 논의 본격화 3가지 중헌안 집중토론

통합종단 출범이후 별빈자에 대한 대서면 단행을 위한 중헌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조계종 중앙총회 중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사면 관련 중헌 개정안을 논의했다.

소위원회는 ‘통합종단 출범 이후부터 불기 2560년까지 별빈 징계를 받은 자 중 독신자로 수행생활을 하며 참회와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에 대해 중헌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중헌 개정 후 시행되는 1회에 한해 사면·경감할 수 있다’는 1안과, ‘별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중앙총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다’는 2안, 중헌 128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3안 등을 놓고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면 이후 일체 중무직 취임을 제한하는 등의 세부 내용을 두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과 대화형 차원의 사면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기도 했다. 위원들은 오는 24일 2차 회의를 열고 3가지 중헌 개정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불교발전 위해 ... 국민 편안하도록 노력”

총무원장 스님, 청불회장
한국당 원내대표에 당부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허원제 청와대불자회장(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입기 동안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15일 허원제 청불회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청불회 활성화 위해 힘써주고,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역할을 잘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 회장은 “원장 스님 말씀 새겨듣고 노력하겠다. 청불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 주셨으면 한다”고 답했다.

허원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지난 3



허원제
청와대불자회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일 제19대 청와대 불자회장으로 선임됐다.

허원제 청불회장은 국제신문·경향신문·KBS 기자, SBS에서 정치부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다. 제 18대 국회의원으로서 새누

리당 홍보기획 본부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1월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됐다.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회 신행모임인 정각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SBS법우회 회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전 조계종 포교원장 해승스님과의 인연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16일에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정재, 이현승 의원이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해 가르침을 구했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국민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정당이 인정받는다”며 “정당 지도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본·말사
주지인사
(2월15일 중무회의)



선제스님
과산 상원사



정혜스님
청도 대적사



범공스님
대구 원만사



선혜스님
대구 화정사



수형스님
대구 덕안사



진공스님
대구 성화사



선오스님
나주 심향사



범수스님
구례 죽림사

총본산성역화 불사 동참 감사드립니다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조계종총본산 성역화불사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모연금은 조계종 총무원 일대를 장엄하는 여법한 불사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기도가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기금 모연명단

(2017년 2월 1일~2017년 2월 14일)

□기금 : △서울 삼택사(주지 효탄스님) 500만원 △서울 원통사(주지 덕조스님) 300만원 △서울 보은사 신도일동 141만원 △서울 백화사(주지 일법스님) 100만원 △민태북 50만원 △이명자 10만원 △무진스님 10만원 △손가영 5만원 △손혜영 3만원 △윤찬목 3만원 △김현자 3만원 △나향란 2만원 △김호준 2만원 △김민태 1만원 △김인숙 1만원 △황유지 5000원. (총 1131만5000원)

※ 모연 후 전화(02-730-6690)를 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성역화불사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백양사 총림 요건 문제없다”

총림실사특위 회의를 확정

지난 207회 중앙총회 정기회에서는 제기됐던 고불총림 백양사의 율학승가대학원 운영 논란과 관련해, 운영상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했다. 조계종 중앙총회 총림실사특별위원회(위원장 태원스님)는 지난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백양사 율학승가대학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총림 구성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백양사 중앙총회위원 만당스님은 “지난해 총림실사 당시 율원을 용흥사로 완전히 옮긴 것처럼 이야기해 오해가 생겼다”며 “현재 율주, 율원장 스님 건강이 좋지 않아 번갈아가며 율원과 용흥사에서 상주하고 있고, 하안거 때 총림사 신내암 자인 청류암으로 원상 복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만당스님의 설명을 듣고 백양사에서 제출한 문건을 검토한 뒤, 총림으로서의 구성 요건에 하자가 없음을 확정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출가자 급감으로 각 총림이 운영하고 있는 승가대학과 승가대학원 등에서 총림 상 규정된 학년별 정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과 협의해 승가대학 운영에 관한 규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3월 중앙총회 임시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www.sudeoksa.com

수덕사 승가대학 신입·편입생 입학공고



경허·만공 대선사의 선풍을 이어받아 불조의 혜명을 편편히 잇고 있는 덕숭총림 수덕사승가대학에서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신입생 1학년 00명, 편입생 2학년 00명, 3학년 00명, 4학년 00명
- 접수기간: 2017년 3월 17일(금요일)까지 서류접수, 2017년 3월 19일(일요일) 입학
- 전형방법: 서류심사, 면접
- 제출서류: (1) 입학원서(수덕사 소정양식).....1부, (2) 신분증 및 사미증 사본1부, (3) 반명함판 사진 3매, (4) 2학년 편입은 1학년 수료증명서, 3학년 편입은 2학년 수료증명서까지 제출, 4학년 편입은 3학년 수료증명서까지 제출. ※제출서류는 수덕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준 비 물: 만의, 장삼, 발우
- 특 전: 1. 전 학년 강의를 이수한 만공장학금 매년 지급, 2. 1인 1실 방사
- 문 의: 041) 330-7700, www.sudeoksa.com

덕숭총림 수덕사승가대학 학장 영도 운영위원장 정묵